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호 THE UNITED / 발행일 2024년 03월 02일 / 등록번호 영등풍리00591
배부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침의동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가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지단 / 디자인 인쇄소 북해소,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호텔앤리조트빌딩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가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4.03.02 / 제1호

vs SUWON FC PREVIEW

인천, 이번에도 승리로 무패 행진
+ 개막전 승리 노린다

vs DAEJEON PREVIEW

'11년의 무패' 인천,
대전 상대로 압도적인 기록 이어간다

BLUEMAN INTERVIEW

'부주장에서 주장으로' 이명주,
구단의 역사를 쓰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IUFC REPORTER REPORT

인천과 함께 항해를 떠날
8명의 새로운 선수 토크하기

ROOKIE INTERVIEW

2024 인천유나이티드 신인 인터뷰
- 친구가 보는 나의 모습





INCHEON UNITED 2024 SQUAD

 김종민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1 민성준 GOAL KEEPER	 25 이범수 GOAL KEEPER	 29 김유성 GOAL KEEPER	 31 성윤수 GOAL KEEPER	 2 김건희 DEFENDER	 3 김연수 DEFENDER
 15 임형진 DEFENDER	 17 김준엽 DEFENDER	 20 델브리지 DEFENDER	 23 정동운 DEFENDER	 24 김민석 DEFENDER	 26 김성민 DEFENDER
 82 요니치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희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16 이가람 MIDFIELDER
 38 박진홍 MIDFIELDER	 40 음포쿠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8 천성훈 FORWARD	 19 송시우 FORWARD
 34 하동선 FORWARD	 37 홍시호 FORWARD	 66 김세훈 FORWARD	 77 박승호 FORWARD	 88 이종욱 FORWARD	



INCHEON UNITED 2024 SCHEDULE

01R	03월 02일(토) 16:30	인천 : 수원FC	인천축구전용
02R	03월 10일(일) 16:00	서울 : 인천	서울월드컵
03R	03월 17일(일) 16:30	울산 : 인천	울산문수축구
04R	03월 30일(토) 14:00	인천 : 대전	인천축구전용
05R	04월 03일(수) 19:30	광주 : 인천	광주축구전용
06R	04월 06일(토) 16:30	인천 : 제주	인천축구전용
07R	04월 14일(일) 16:30	인천 : 대구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21일(일) 14:00	강원 : 인천	춘천송암
09R	04월 28일(일) 14:0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10R	05월 01일(수) 19:00	인천 : 전북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05일(일) 16:30	김천 : 인천	김천종합
12R	05월 11일(토) 16:3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13R	05월 18일(토) 16:30	대전 : 인천	대전월드컵
14R	05월 25일(토) 19:00	인천 : 광주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9일(수) 19:3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01일(토)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17R	06월 16일(일) 18: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18R	06월 23일(일) 18: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19R	06월 26일(수) 19:3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20R	06월 30일(일) 19: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5일(금) 19:30	인천 : 김천	인천축구전용
22R	07월 09일(화) 19:3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23R	07월 14일(일) 19:00	광주 : 인천	광주축구전용
24R	07월 21일(일) 19:00	인천 : 수원FC	인천축구전용
25R	07월 27일(토) 19:3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10일(토) 19:3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27R	08월 17일(토) 19:30	대전 : 인천	대전월드컵
28R	08월 24일(토) 19:30	인천 : 전북	인천축구전용
29R	08월 31일(토) 19:3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30R	09월 15일(일) 16:30	김천 : 인천	김천종합
31R	09월 22일(일) 19: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32R	09월 27일(금) 19:3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33R	10월 06일(일) 15: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s SUWON FC PREVIEW

“수원FC 상대 4G 연속 무패” 인천, 이번에도 승리로 ‘무패 행진+개막전 승리’ 노린다

글=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의 2024시즌 첫 손님은 수원FC다.

인천 팀 조직력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수원FC의 겨울은 반대로 뜨거웠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으로 K리그1에 잔류한 수원FC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김은중 감독 선임 시작으로 권경원, 지동원, 최규백 등 이름값 높은 선수들도 영입하는 등, 총 19명을 떠나보내고 27명을 영입했다. 특히 지난 시즌 군복무를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온 이준석까지 품에 안으며 공격력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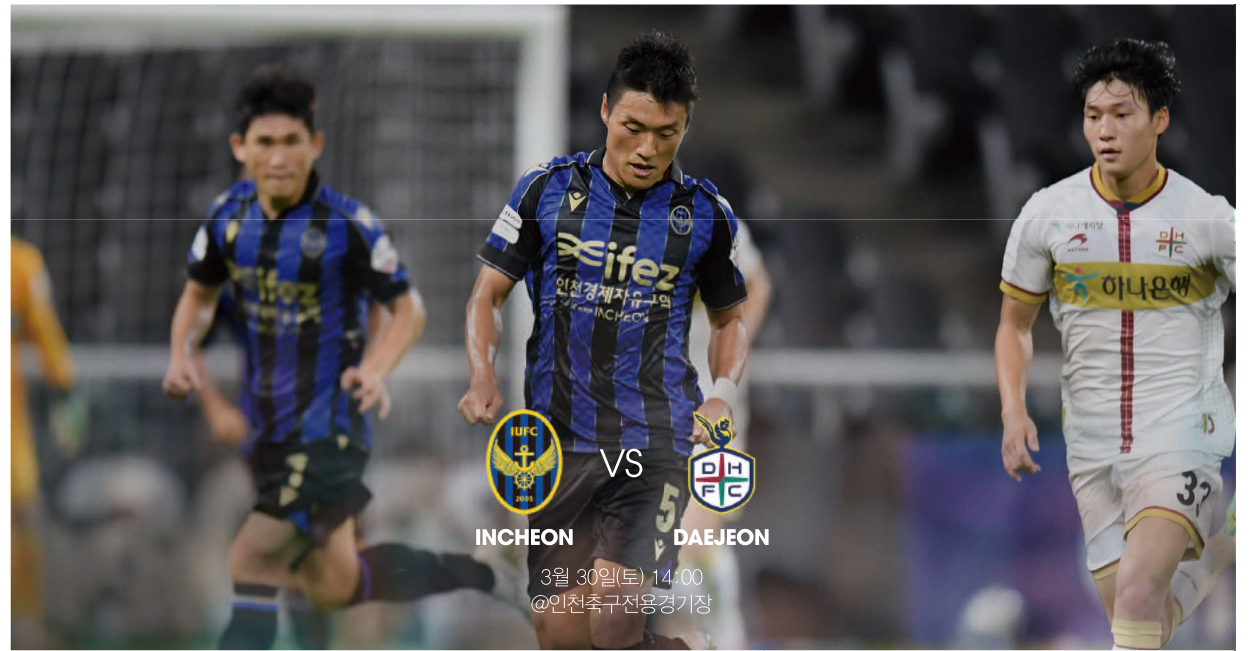
겨우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두 팀 간의 2024시즌 첫 맞대결이 주목된다.

인천은 수원FC가 최근 K리그1으로 승격한 2021년부터, 리그 기준 상대 전적 2승 6무 1패를 기록하며 대등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2022년 7월 6일 홈경기에서의 0-1 패배 이외에는 수원FC를 상대로 진 적이 없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1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직전 맞대결에서는 오반석의 극장 역전골로 승리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인천은 위 9경기에서 15득점 12실점을 기록하며 팽팽한 득실차를 보이고 있다. 득점 기대가 높지만, 그만큼 실점할 확률도 크다. 치앙마이와 창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돌아온 선수단이 2024시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인천은 공격의 주축이었던 에르난데스의 이적, 김동현과 이태희의 입대 등의 공백이 생겼고, 이를 메워줄 베테랑 골키퍼 이범수와 K4리그 출신의 젊은 피 성윤수를 영입하였다. 여기에 인천의 2015시즌 팀 최소 실점과 2016시즌 극적 잔류의 일등공신인 마테이 요니치를 영입하며 수비 보강에 힘을 기울였다.

인천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단행한 공격적인 영입에 비해, 시즌 초반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며 조직력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의 인천은 작년보다 적은 변화를 주며 안정을 추구하였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주축 선수 이탈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지만, 오히려 적은 변동으로



vs DAEJEON PREVIEW

‘11년의 무패’ 인천, 대전 상대로 압도적인 기록 이어간다

글 = 이지우 UTD기자 (jw2000804@naver.com)

수원FC와의 개막전 후 펼쳐질 인천의 두 번째 홈경기는 30일 대전과의 경기이다. 지난 시즌 8년 만에 1부로 복귀한 대전은 시즌 초 돌풍을 일으켰지만, 파이널A 진출에는 실패하면서 리그 8위로 시즌을 마쳤다. 리그 내 득점 3위(56득점)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공격력을 지녔지만, 수원FC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정도(58실점)로 수비에서는 허점을 보였다. 한때는 리그 상위권 판도를 뒤집을 팀으로 여겨졌지만 여름부터는 힘이 떨어졌다. 새 시즌에 다시 만나게 된 인천과 대전은 파이널A로 치고 올라가기 위한 여정에서 다시 경쟁하리라 예상된다.

정팀을 상대하는 김준범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도 경기를 바라보는 관전 요소이다.

2024시즌을 앞두고 대전은 포항의 김승대, 대구의 홍정운, 인천의 김준범 등을 영입하면서 야심 차게 팀을 보강했다. 여기에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된 광주의 이순민을 영입하면서 이목을 끌었지만, 한편으로는 핵심 선수였던 티아고, 조유민을 잃었다. 부지런하게 시즌을 준비한 대전이지만 지난 시즌의 약점을 보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약점이었던 수비진에는 아론, 홍정운이 들어왔지만 핵심이었던 조유민을 잃으면서 타격도 입었고, 팀의 최전방을 이끌던 '득점 공동 1위' 티아고의 이탈도 치명적이다. 여기에 핵심 U22 자원이었던 전병관도 티아고와 함께 전북으로 이적했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 호사가 얼마나 공백을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선수들이 있다. 바로 양 팀의 공격을 이끄는 선봉장, 제르소와 김승대이다. 인천의 에이스로 꼽히는 제르소는 K리그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한다. 제르소는 지난 시즌 리그 7득점 6도움, 전체 10득점 9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공격포인트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전과의 맞대결에서 이미 결승골을 넣어봤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제르소가 상대 수비의 공간을 파고들어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주느냐에 따라 경기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 한편 포항에서 대전으로 이적한 김승대는 '라인브레이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침투 능력을 지녔다. 지난 시즌 김승대는 인천을 상대로 한 차례 도움을 기록했고, 페널티킥을 얻기도 했다. 그만큼 김승대의 침투와 활동량은 인천에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김승대를 얼마나 제어하느냐가 인천 입장에서 승부의 열쇠로 꼽힌다.

대신 대전의 중원은 전보다도 더욱 강해졌다. 이진현, 김영욱이 팀을 떠났지만 주세종, 이현식 등은 여전히 팀을 지키고 있다. 여기에 K리그 베스트 11에 오르면서 전성기를 맞이한 이순민이 합류하면서 경기 장악력이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를 모은다. 한편 인천에서 활약했던 김준범 역시 김천상무전역 이후 바로 대전으로 이적했다. 김준범 역시 다재다능한 선수이기에 친

인천은 대전을 상대로 리그 기준 21승 5무 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대전이 시민구단이던 시절부터 크게 앞서 나갔고, 기업구단으로 바뀐 후 다시 만난 2023시즌에도 2승 1무를 거뒀다. 인천은 2013시즌 4라운드에 패배한 이후 10년 넘게 대전 상대로 무패를 이어가는 중(8경기)이다. 전적으로 보면 인천이 유리한 입장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3시즌 2라운드에 대전을 만났을 당시 두 팀은 추가시간까지 공방전을 벌이며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지향하는 대전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인천만의 플레이를 유지하는 평정심이 가장 핵심이다.



2024 INCHEON UNITED IN & OUT

IN

- | | | | | | |
|---------|------|----------|---------|------|------------|
| • 김 훈 | 신인계약 | ▶ 대건고등학교 | • 이 가 람 | 신인계약 | ▶ 대건고등학교 |
| • 강 도 욱 | 신인계약 | ▶ 부평고등학교 | • 백 민 규 | 신인계약 | ▶ 평택진위FC |
| • 최 승 구 | 신인계약 | ▶ 평택진위FC | • 이 범 수 | 이 적 | ▶ 부천FC1995 |
| • 성 윤 수 | 이 적 | ▶ 세종바네스 | • 요 니 치 | 자유계약 | ▶ 세레소오사카 |

OUT

- | | | | | | |
|---------|------|---------------|---------|-----|---------------|
| • 김 대 중 | 계약만료 | ▶ 천안시티FC | • 이 동 수 | 이 적 | ▶ 부산아이파크 |
| • 김 준 범 | 이 적 | ▶ 대전하나시티즌 | • 박 현 빈 | 이 적 | ▶ 부천FC1995 |
| • 이 준 석 | 이 적 | ▶ 수원FC | • 김 동 현 | 임 대 | ▶ 김천상무 (군 복무) |
| • 이 태 희 | 임 대 | ▶ 거제시민 (군 복무) | • 강 윤 구 | 임 대 | ▶ 미정 (군 복무) |
| • 에르난데스 | 이 적 | ▶ 전북현대모터스 | | | |



'부주장에서 주장으로' 이명주 구단의 역사를 쓰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글 = 손지호 UTD기자(thswlgh50@ajou.ac.kr)



인천이 '생존왕' 타이틀에서 벗어나 어엿한 강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에 팀을 이끌 주장으로 지난 시즌 부주장이었던 이명주가 선임됐다.

UTD기자단은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열중하고 있는 주장 이명주를 만나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천에 대한 애정이 커진다

이명주는 2022년 인천에 입단 어느덧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명주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처음 왔을 때는 클럽하우스도 없었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훈련장도 없어 운동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좀 놀랐다. 그 외중에도 선수들이 목표를 가지고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경기 준비해 결국 파이널A에 오르고 구단 창단 첫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낭만적인 구단에 왔다고 생각했다"고 인천 이적 첫 시즌을 돌아봤다.

이어 이명주는 "2년 차 때는 환경도 좋아지고 더 큰 무대로 나간다는 생각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다. 아쉽게 아시아 무대 진출권은 얻지 못했지만 2년 연속 파이널A라는 성과를 연달아 내면서 시즌이 지날수록 팀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좋은 기억뿐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팀에 대한 애정이 엄청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명주는 지난 시즌 다른 선수들보다 일찍 시즌을 마무리했다.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인 포항 원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다. 당시 인천은 ACL, FA컵, 리그까지 중요한 경기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이명주의 부상 이탈은 치명적이었다. 이명주는 "정말 아쉬웠다. 그때 전북현대와 FA컵 준결승도 있었고 ACL에서도 토너먼트 진출에 유리한 위치였다. 리그도 4위 이상 노려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 더 아쉬운 것 같다"며 "특히 개인적으로 FA컵 우승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준결승에 못 뛰게 된 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다. 돌이켜보면 시즌 끝까지 뛸 수 있게 몸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시즌엔 특히나 부상 관리에 있어 시즌 시작 전부터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제는 익숙해진 전지훈련, 작년보다 더 진지해졌다

올겨울 인천은 작년과 같은 태국 치앙마이로 1차 전지훈련을 떠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했다. 이명주는 "인천 소속으로 태국 전지훈련을 떠난 것도 두 번째라 적응이 돼서 치앙마이 현상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태국 날씨나 환경 자체가 운동하기에 너무 좋아서 날씨로 인해 다칠 걱정 없이 선수단 전체가 즐겁게 훈련하고 몸을 잘 끌어올리고 돌아온 것 같다"고 태국 전지훈련을 돌아봤다.

이어서 이명주는 "태국에서는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포인트였다. 대

신 감독님이 선수 체력 관리를 1차적으로 선수들 스스로에게 맡겼던 것 같다. 작년에는 선수 각각의 체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팀 훈련에서 모든 부분을 준비했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강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었었다. 근데 올해는 선수들 각각 팀 훈련 때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 운동이나 휴식을 통해 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전지훈련은 선발대와 후발대가 나눠서 이동했다. ACL 일정으로 시즌을 늦게 마무리한 선수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명주는 "올해는 지난 시즌을 늦게 마무리한 선수도 있어서 완전체로 훈련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태국에 3주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같이 훈련한 것은 마지막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후발대로 온 선수들이 개인 운동을 많이 하고 와서 팀 훈련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팀 분위기가 어땠는지 물음에 이명주는 "선수들 모두 작년보다 더 많이 진지해진 것 같다. 이전에는 동계훈련 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밝고 파이팅 넘치게 준비해서 이 분위기를 시즌 초반부터 이어가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해는 밝은 분위기 속 선수들의 진지함이 보였다. 다들 엄청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장으로서 구단의 역사를 쓰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인천은 지난 1월 2024시즌을 이끌 주장으로 이명주를 선임했다. 이명주의 축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팀의 주장을 맡게 됐다. 이명주는 "감독님과 코칭스태프분들이 자연스럽게 부주장에서 주장으로 넘어가게끔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던 것 같다. 사실 작년에 부주장을 맡으면서 스스로 경기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었고 주장단을 맡아보니까 저항 안 맞는 자리인 것 같았다"고 조심스레 당시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서 이명주는 "아무래도 주장단을 맡으면 팀을 우선시하고 항상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다. 앞에 나서 도와주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동계훈련 시작 전에 감독님께 미리 주장 자리를 고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근데 감독님께서 평소 운동할 때나 생활할 때 모습을 보고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던 대로 팀원들과 좋은 시즌을 보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더 부담을 내려놓고 주장직을 수락할 수 있었다"고 선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명주는 지난 시즌 주장 오반석과 함께 부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다. 부주장을 했을 때와 차이점이 있는지 묻자 이명주는 "아무래도 주장이라 하면 훨씬 더 팀원들을 생각해야 하고 1년 내내 팀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기 기본보다는 팀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명주는 "우선 작년에 부주장을 하면서 (오)반석이 형을 많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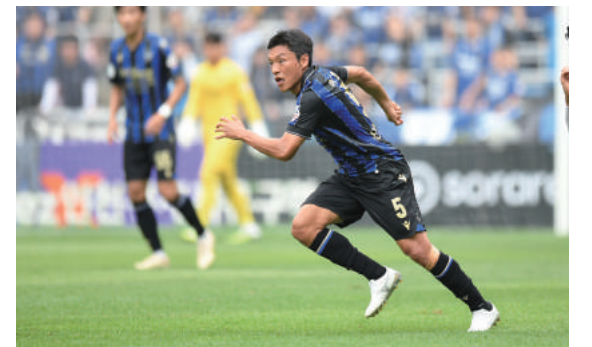
인천은 지난 시즌 2년 연속 파이널A에 진출했다. 2년 연속 파이널A에 진출한 팀은 울산, 포항, 전북, 인천까지 단 4팀에 불과하다. 이전의 만년 강동권을 맡았던 팀에서 이제는 강팀 반열에 올랐다. 그만큼 이전보다 팬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팀을 하나로 모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주장이 느끼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명주는 긍정적인으로 바라봤다.

이명주는 "처음에 인천에 왔을 때부터 선수 구성이 충분히 파이널A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천을 선택했고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고 매 경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지만 생각하려고 한다. 그렇게 한 경기씩 이기다 보면 좋은 성적은 따라오는 거라 생각한다"라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팀에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어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나 후배들에게 좋은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명주에게 이번 시즌 목표를 물었다. 이명주는 "현실적인 목표는 3년 연속 파이널A에 드는 거고 ACL 진출과 리그 우승 경쟁까지 할 수 있는 시즌을 보내는 게 목표"라며 "개인적으로는 공격포인트보다는 체중 관리를 잘 하는 게 목표다. 몸무게가 73~74Kg 대일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거 같아서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위에서 얘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이명주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며 "선수들이 좋은 시즌을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을 텐데 힘든 날에는 좀 더 서로를 믿으며 격려해 주고 좋은 날에는 더 축하해 주면서 시즌을 보낸다면 분명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주는 "인천에서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에 부응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서 이번 시즌 경기장에 찾아오시는 모든 팬분들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빨리 경기장에서 찾아뵙고 싶다. 팬분들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다"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죄송하다. 반석 이 형이 주장을 맡아 몸소 보여준 부분들이 많이 귀감이 됐다. 팀원들을 위해 희생도 많이 했고 본인도 시즌 보내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내색 없이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팀이 목표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명주와 함께 이번 시즌 팀을 이끌어갈 부주장으로 김도혁이 선임됐다. 이명주와 김도혁은 둘 도 없는 절친이다. 아산무궁화축구구단에서 시작되어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온 만큼 두 사람의 케미가 좋다. 이명주는 "인천에 처음 왔을 때부터 (김)도혁이랑 서로 의지도 많이 했고 와이프가 질투할 만큼 서로 많은 걸 공유한 사이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나누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동생이기 때문에 도혁이와 이런 케미가 팀을 이끄는 데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거 같다"고 기대했다.

축구 인생 처음으로 맡은 주장인 만큼 이명주는 주장으로서 각오가 남달랐다. "축구를 하면서 주장은 처음 맡아보는데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믿고 주장으로 선택해 주신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즌 주장으로서 구단의 역사를 쓰는 데 보탬이 되고 싶고 꼭 좋은 성과를 내서 주장을 맡은 보람을 느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인천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의 변화가 다른 팀에 비해 굉장히 적었다. 기존 주축 자원들이 모두 팀에 남았고 선수 영입도 계획해둔 최소한의 영입만 진행했다. 신인 선수를 제외하면 영입 선수가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명주는 "시즌 준비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 경기장 안에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팀워크로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뛰는 선수들의 장점과 성격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숙한 선수들과 함께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시즌은 더욱 단단하게 뭉친 한 팀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인천은 선수단에 어린 선수들이 많은 편이다. 전체 선수단 41명 중에서 2000년 이후 출생자가 20명이나 된다. 그 안에서 나이 차이도 꽤 나는 편이다. 실제로 이명주와 가장 어린 선수의 나이 차이는 무려 16살 차이다. 이명주는 어린 선수들과 지내는 것에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명주는 "제가 편안하게 다가가긴 하지만 그 선수들은 불편해할 수 있어서 억지로 다가가기보다는 계속 지켜보다가 먼저 물어보면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편이다. 또는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어린 선수들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챙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함께 항해를 떠날 8명의 새로운 선수 토크하기

글 = 손지호 UTD기자(hswlgh50@ajou.ac.kr)

인천은 창단 첫 ACL 참가부터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까지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다. '생존왕' 타이틀에서 벗어나 확실하게 강팀으로 올라섰다. 이제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만드는 팀이 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인천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8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나섰다. 2024시즌 인천과 함께 항해를 떠날 새로운 얼굴들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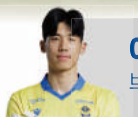
요니치(DF)
세레소 오사카 → 인천유나이티드

인천에 또 한 번 낭만의 바람이 불었다. 2015시즌부터 2년간 뛰었던 요니치가 인천으로 복귀했다. 요니치는 '만능' 수비수에 가깝다. 큰 키를 활용한 채공권 장악 능력으로 세트피스로 힘들었던 팀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대인 수비 능력과 넓은 활동 반경도 3백을 주로 사용하는 인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니치는 K리그 7경기, 일본에서 통산 221경기를 뛴 베테랑이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실력은 여전하다. 오히려 많은 경험으로 노련함까지 갖췄다.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K리그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성운수(GK)
세종바네스FC → 인천유나이티드

정말 오랜만에 유스 출신이 아닌 골키퍼가 팀에 합류했다. 2003년생으로 팀 내 골키퍼 중 가장 어리다. 성운수는 K4 리그 세종 바네스FC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다. 골키퍼지만 발기술이 좋아 후방에서 골키퍼를 포함한 빌드업 상황에서 장점이 발휘된다. 187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한 선방 반경이 넓은 편이다. 커리어 첫 프로 무대이기 때문에 적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운수의 가세로 골키퍼 포지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범수(GK)
부천FC 1995 → 인천유나이티드

K리그 15년 차 베테랑 골키퍼 이범수가 인천에 합류했다. K리그 통산 159경기에 출전했다. 190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순발력과 반사 신경을 이용한 선방 능력이 장점이다. 그리고 양 발을 모두 잘 사용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 K리그 1 무대를 잠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군 입대로 잠시 팀을 떠난 김동현과 이태희의 공백을 든든하게 채울 예정이다.



김훈(MF)
대건고 → 인천유나이티드

김훈은 인천 U-12-광성중(인천 U-15)-대건고(U-18)를 거친 인천 성골 유스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인천에 합류했다. 측면 공격과 미드필더를 보며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 강한 압박 상황에서도 공을 뺏기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든다면 경기장에서 크랙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이 출중하다.



이가람(MF)
대건고 → 인천유나이티드

대건고 졸업 후 인천에 합류했다. 3선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며 측면 수비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다.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상대방과 경합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적인 플레이가 장점이다. 대건고 시절에도 중원의 지휘자로 팀의 궂은일을 도맡았다. 다부진 몸에서 나오는 묵직한 킥 능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U-18 대표팀에도 두 차례 부름을 받은 바 있다. 기존 중원 자원들의 연령대가 높은 만큼 프로 무대에 빠르게 적응한다면 중원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백민규(FW)
평택 진위FC → 인천유나이티드

백민규는 고교축구 돌풍의 팀 평택 진위FC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입단했다. 좌우 측면과 중앙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다재다능 공격수다. 과감한 전진 드리블이 장점이며 중거리 슈팅 능력도 뛰어나다. U-18 대표팀에 4차례 부름을 받았고 EOU컵에서는 3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을 만큼 발끝이 매섭다. 2023 퓨처스 스타대상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다.



강도욱(MF)
부평고 → 인천유나이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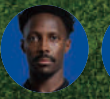
부평고를 졸업하고 인천에 입단한 로컬보이 강도욱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격 진영에서 플레이 메이커 역할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왼발을 굉장히 잘 쓴다. 부평고 시절 강도욱의 왼발에서 모든 팀의 공격 전개가 이뤄졌다. 왼발 슈팅과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며 시야가 넓어 결정적인 패스도 많이 만들 줄 안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U-18 대표팀에도 3차례 소집됐고 지난 10월 EOU컵에도 참가했다.



최승구(DF)
평택 진위FC → 인천유나이티드

최승구도 평택 진위FC에서 인천으로 입단했다. 오른쪽 측면 수비가 주 포지션이지만 중앙 미드필더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다. 대인 수비 능력과 공격 시에 과감한 전진성이 장점이다. 공격 전환 상황에서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측면에서 시작하는 빌드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킥 능력도 좋아 고교 시절 전담 킥으로도 활약했다. U-18 대표팀에도 2차례 발탁될 정도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24시즌 예상 포메이션









제르소 무고사 송시우 지언학 김보섭 이종욱 천성훈
(U22: 김민석, 박승호, 김현서, 하동선, 백민규)







신진호 이명주 김도혁 음포쿠 문지환
(U22: 김세훈, 박진홍, 강도욱, 김훈, 이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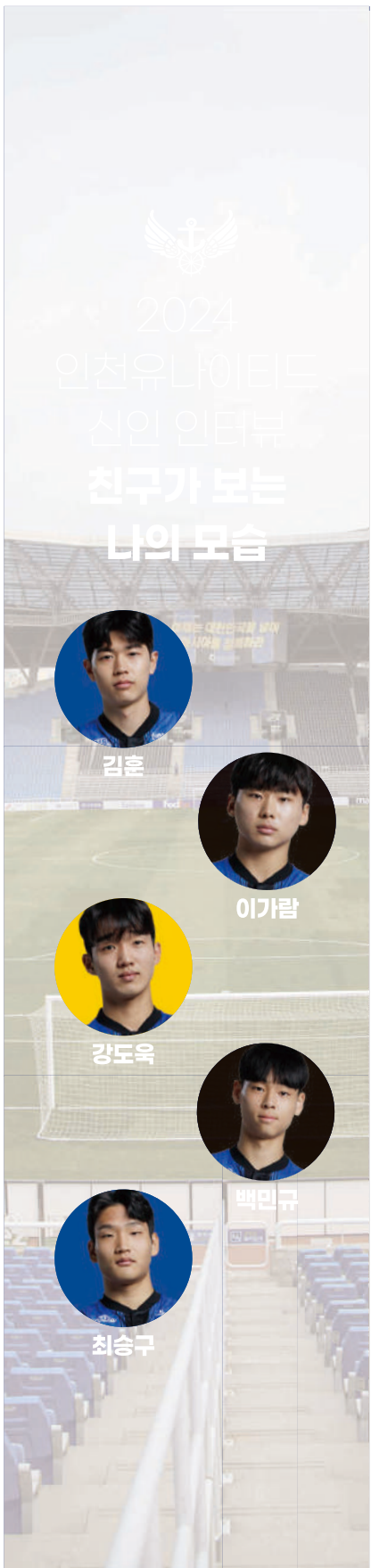












인천유나이티드는 2024시즌을 앞두고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 선수 5명을 영입했다. 지난 시즌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만큼 올해 신인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UTD기자들이 신인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를 준비했다. 축구 선수의 모습 외에도 인간미 넘치는 신인 선수들의 다양한 매력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손지호 UTD기자 : 안녕하세요, 2024시즌 첫 매거진에서는 올해 인천유나이티드에 입단해 프로에 입성한 신인 선수 김훈, 이가람, 강도욱, 백민규, 최승구 5명의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로 무대에 처음 발을 들였기 때문에 팬분들이 아직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훈 : 안녕하세요, 인천유나이티드 U-12, U-15팀 광성중학교, U-18팀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한 김훈입니다. 주로 왼쪽 측면 공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가람 : 저는 인천유나이티드 U-18팀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단하게 된 이가람입니다. 저의 주 포지션은 3선 수비형 미드필더이고 측면 수비수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도욱 :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 부평고를 졸업하고 신인으로 오게 된 강도욱이라고 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팀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백민규 : 이번에 평택 진위FC에서 3년을 뛰고 인천에 신인으로 들어온 백민규입니다.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과 중앙 공격수도 맡을 수 있습니다.

최승구 : 저도 민규랑 같이 평택 진위FC에서 뛰었던 최승구입니다. 제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천에 입단하기 전에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나요?

가람 : 도욱이랑은 중학교 때부터 경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었어요.

훈 : 만난 적은 없지만 도욱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인천에서 많이 유명했어요.

가람 : 승구랑 민규는 연령대 대표팀에 같이 소집됐어서 본 적이 있어요.

민규 : 저는 도욱이랑 U-18 대표팀에서 EOU컵을 같이 뛰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서로 상대팀으로 만난 적도 있었나요?

도욱 : 제가 인천에 있어서 대회가 많이 겹쳤는데 가람이를 상대편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가람 : 상대팀 선수 중에서 도욱이가 제일 잘했던 거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작년과 다르게 신인 5명 모두 동갑내기예요. 서로 의지가 많이 될 거 같은데 어때요?

훈 : 서로 나이도 같고 항상 같이 다니다 보니 까다로워지고 의지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동갑내기라서 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승구 : 각자의 장점이 두드러져서 운동장에서 서로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도욱 : 편하게 떠들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첫 전지훈련을 다녀와서 서로 같이 생활했는데 서로서로 어떤 선수인 거 같나요? 먼저 김훈 선수부터 이야기 해봅시다.

도욱 : 행동할 때 정말 빠릿빠릿하고 엄청 열정적인 친구예요.

승구 : 운동장에서 1대 1 수비를 해봤는데 엄청 저돌적이고 드리블도 정말 잘해요.

가람 : 고등학교 때 같은 팀이라 계속 봤는데 엄청 밝은 사람이에요.

승구 : 맨날 저한테 시끄럽다고 하는데 훈이도 생각보다 되게 시끄러운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람 : 공격할 때 드리블이 장난 아니예요.

이가람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훈 : 고등학교 때 같은 팀이어서 항상 같이 있는데 경기 될 때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을 안 사려요. 자기 몸을 막 부수면서 자신을 다치게 하니까 맨날 몸 좀 사리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너무 걱정이예요.

민규 : 피지컬이 완전 압도적이에요. 애가 팔뚝이 우락부락해서 엄청 세요.

승구 : 근데 덩치에 비해 되게 말을 많이 안 해요. 정말 조용한 캐릭터라 반전이었어요.

도욱 : 근데 처음에만 그랬지 지금은 말이 엄청 많아요.

다음은 강도욱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람 : 되게 조용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까불어요.

훈 : 엄청 착한데 저한테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민규 : 처음엔 되게 조용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승구 : 축구 칭찬도 얘기해 주자.

민규 : 축구 진짜 잘해요. 특히 왼발 슈팅이 장난 아니예요. 완전 왼발의 마법사입니다.

승구 : 공을 엄청 예쁘게 차요.

다음 순서는 백민규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 인가요?

승구 : 같은 팀 출신으로 얘기하자면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도 잘하고 판단도 좋아요. 근데 평소 생활할 때는 순진하게 생겼는데도 갑자기 뜬금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조용하다가 갑자기 엄청 까불다가 그래요.

도욱 : 그래도 개인 발전을 위해 엄청 노력하는 친구입니다.

승구 : 갑자기 칭찬하면 내가 이상해지잖아...

훈 : 민규 진짜 착해요. 배려를 진짜 많이 해 줘요.

가람 : 운동장에서 열정이 넘치고 맨날 남아서 개인 운동을 엄청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최승구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훈 : 승구는 엄청 활기차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친구 같아요. 근데 장난기가 엄청나요.

가람 : 장난기 많은 거 저도 동의합니다.

도욱 : 선배들에게 말을 잘 걸어요. 운동장에서는 승부욕이 엄청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민규 : 제가 승구의 매력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말할 때 입을 보면 앞니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완전 매력 포인트예요.

승구 : 와 진짜 내 트레이드 마크까지 꺼낸다고?

민규 : 이걸로 팬분들한테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도욱 : 이미 형들한테 앞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민규 : 축구 실력도 칭찬하자면 사이드 백인데 미드필더와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킥이랑 슈팅도 좋아요. 완전 육각형 수비수예요.

승구 : 칭찬 길게 했으니까 봐준다.

좋은 말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까 해요. 서로에게 이것만큼은 배우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훈 : 가람이가 운동장에서 헌신하는 모습은 진짜 배우고 싶어요. 고등학생 때도 매번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같이 있는 동안 보면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 저도 가람이의 헌신적인 모습과 단단한 피지컬을 갖고 싶어요.

민규 : 저는 승구랑 도욱이한테 묵직한 슈팅을 배우고 싶어요.

도욱 : 저는 다른 모든 선수 각각의 장점을 다 갖고 싶어요. 가람이한테는 피지컬, 훈이한테는 스피드, 민규한테는 큰 키, 승구한테는 경기장에서 다부진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가람 : 훈이의 볼 다루는 기술과 드리블을 배우고 싶어요. 제 스타일이 투박해서 훈이 볼 때마다 부럽다고 생각했거든요.

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자신만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훈 : 신인의 패기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감이 묻어나는 저돌적인 드리블입니다.

가람 : 저의 강점은 중원에서 경합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헌신적이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입니다.

도욱 : 공격 상황에서 쉽게 풀어나가는 것과 왼발 킥에 자신 있어서 먼 거리에서도 슈팅 기회가 생기면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민규 : 저는 공격할 때 흐름을 살리는 플레이와 과감한 전진 드리블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가담 능력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 몸 사리지 않는 수비와 1대 1 수비력, 공격할 때는 빠른 오버래핑과 후방에서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강점입니다.

프로 첫 시즌인데 생각한 목표가 있나요?

훈 : 이번 시즌에 1초라도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제 강점을 살려 데뷔전에 데뷔골을 성공시켜 팬분들에게 제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가람 : 무조건 짧은 시간이라도 경기에 출전해 데뷔전을 갖고 싶습니다.

도욱 : 첫 번째는 당연히 데뷔전을 갖는 것입

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안 다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규 : 최대한 경기 명단에 많이 들고 싶고 출전 기회가 왔을 때 공격포인트를 올리고 싶습니다.

승구 : 이번 시즌 5경기 이상 경기장을 밟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프로 첫 공격포인트도 올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훈 : 입단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더욱 힘을 내서 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팬분들의 응원에 걸맞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람 : 항상 진심을 담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선배님에게 열심히 배우고 하루빨리 성장해서 경기장에서 저라는 선수를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인인 만큼 항상 간절하고 실력과 인성까지 겸비한 멋진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욱 : 인천 출신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성장하겠습니다. 인천 경기를 보러 오면 항상 팬분들의 응원에 많이 놀라기도 했고 그런 응원을 받으면서 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증명할 테니 많이 찾아오셔서 열성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 인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빨리 경기장에서 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팬분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서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승구 : 개인이 아닌 팀이 돋보이게 만드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를 출전했을 때 파랑검정 팬분들이 큰 소리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받은 응원만큼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글 = 손지호 UTD기자(thswigh50@ojou.oc.kr)



IUFC
BLUE MARKE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경기 종료 30분 운영

경기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하프타임 매장 이용가능

온라인 블루마켓



incheonutdmarket.com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6-3
(신포 문화의 거리)



IUFC TV

**2024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 카카오톡 · 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유나이티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YouTube



kakao tv



NAVER TV